



SK스퀘어,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SK ICT 연합'을 출범한다. 'CES 2022'에서 3사의 공동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있는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왼쪽부터)과 류수정 SK텔레콤 AI 엑셀러레이터 담당, 유영성 SK텔레콤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 윤용영 SK스퀘어 CIO.

‘SK ICT 연합’ 출범…글로벌 공략 드라이브

3사 공동투자 미국법인 설립 추진
AI·반도체 등에 1조원 공격 투자
박정호 부회장 “대도약·혁신 원년”

SK스퀘어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뭉쳤다. 3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2'에서 'SK ICT(정보통신기술) 연합'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SK스퀘어의 투자, SK텔레콤의 5G·인공지능(AI) 기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사 공동 투자로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ICT 투자자본도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박정호 SK스퀘어·SK하이닉스 대표(부회장)가 주도하는 '3사 시너지협업체'도 운영한다. 박 부회장은 “SK ICT 연합이 힘을 모아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도약하고 혁신하는 한 해를 만들 것이다”며 “글로벌 반도체·ICT 산업을 이끈다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가 경제

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시너지 첫 결과물 “사피온 키운다”

3사 시너지의 첫 결과물은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사피온’(SAP EON)의 글로벌 진출이다. 3사는 이를 위해 공동 투자로 미국법인 ‘사피온 Inc’을 설립한다.

SK텔레콤은 5G, AI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개발(R&D) 역량과 서비스 경험을 기반으로 사피온 기술 개발을 주도해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전용 사피온 모델 라인업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AI 반도체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SK스퀘어는 SK텔레콤과 함께 전략·재무적 투자자를 공동 유치할 예정이다.

사피온 Inc.는 주로 미국에 거점을 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삼아 AI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 내 반도체 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사피온 코리아는 사피온 I

nc.의 자회사로 한국과 아시아 지역을 담당한다.

●1조 ICT 투자자본 공동 조성

3사는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ICT 투자자본도 조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 우수 투자자들과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 SK 측 설명이다. 조성된 자본의 투자처는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반도체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사는 전략 투자를 기반으로 ICT 기술 융합 트렌드를 주도하고, 미래 산업 지평을 바꿀 수 있는 해외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SK ICT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는 투자한 기업과 사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거나, 향후 유리한 조건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스퀘어는 투자전문 기업으로서 중요한 투자 실적과 기업가치 증

대 효과를 노린다.

●SK하이닉스, ‘인사이드 아메리카’ 실행

SK하이닉스는 빠르게 변하는 ICT 환경을 주도하는 글로벌 일류 기술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그림을 내놨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수요처의 다양화와 CPU(중앙처리장치), GPU(그래픽처리장치), MPU(마이크로프로세서유닛) 등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 내 다원화가 진행 중이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낸드플래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기존 반도체 공급사 역할에서 벗어나 글로벌 유수 ICT기업과 함께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ICT 시장 미국에서 ‘인사이드 아메리카’ 전략을 실행한다. 미주 사업조직을 신설하고, R&D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카카오 노조 “류영준 반대…대표 내정 철회하라”

카카오페이 주식 대량 매각
사과 불구 ‘먹튀’ 논란 확산

상장 한 달 만에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면서 불거진 카카오페이가 경영진의 ‘먹튀’ 논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영진들이 사과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 내부에서도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차기 카카오 공동대표 선임을 철회하



류영준 대표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선임 카카오 대표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 공동 대표로 내정된 류 대표는 3월 공식 대표로 선임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10일 류 대표

와 신원근 차기 대표 등 카카오페이가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회사 주식 약 44만 주를 매각하면서 불거졌다. 경영진들의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진 뒤 카카오페이가 주가는 하향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12월 9일 20만8500원이던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 7일 15만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카카오페이가 경영진은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향후 책임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영준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사내 간담회에서 “저를 비롯한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송구하다”며 “상장사 경영진으로서 가져야 할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주주까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모회사 이동에 따른 이해상충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보유한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해 매도하기로 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도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2년의 임기 기간 동안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이덕재 CCO

LG유플러스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덕재 전 포디리플레이 최고콘텐츠책임자(CCO)를 영입했다. 이덕재 전무는 약 26년 동안 방송제작, 콘텐츠 사업 전략과 운영을 해온 미디어 콘텐츠 분야 전문가다. tvN 본부장을 거쳐 CJ ENM 미디어 콘텐츠부문 대표, CJ ENM 아메리카 대표를 역임했다. 포디리플레이에서는 콘텐츠 본부장을 맡아 영상 기술과 결합한 신규 콘텐츠 제작을 주도했다. 이 전무는 콘텐츠·플랫폼사업담당장령 CCO로서 확장현실(XR), 아이돌Live, 스포츠, 스마트홈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플랫폼별 최적화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등 LG유플러스의 콘텐츠·플랫폼 사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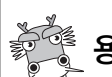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LG유플러스, CJ 출신 이덕재 CCO 영입

오늘의 날씨			10일(월)		
서울	20/30	-3 4	인천	20/40	-2 3
강릉	30/30	1 9	대전	20/20	-4 7
광주	10/20	-2 9	대구	10/20	-3 9
창원	10/20	-1 10	제주	10/30	4 1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4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소로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10일 (월) 음력: 12월 8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무리한 일을 추진하려 하는 것보다 현재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오히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뭉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미혼자는 의외의 연인이 출현하여 혼담이 성사 되겠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서류는 잘 확인하고 대인관계에 신경 쓰라.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삭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일의 시작에 고난이 따르며 자식걱정 있겠다.	힘이 넘치는 기운이나 큰일을 할 수가 없다. 왕성한 의욕을 억제하여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폐사에 도를 지나치면 화를 입기 쉬운 때이다. 특히 대인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움직이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남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적으로는 허점이 있으며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사업의 시작단계이므로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낮은 자세로 임하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먼 곳과의 거래가 성사되고, 자격시험 합격, 신용의 증대가 예상된다. 해외무역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겠다. 오늘은 양이 돼지를 만나는 날이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끈기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너그러운 처세를 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선배의 의견을 따르며 매사 마음먹은 대로 잘 될 것이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기회이다. 유구분출, 잠재력발휘의 날이다.	음주 가무로 흥겨운 반면 고생이 따르겠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수입이 많아지나 지출도 많이 따르겠다. 지나친 향락으로 방탕하기 쉬워지며 쓸데없는 다름이나 금전 낭비, 애정의 실패, 이성관계의 문제 등이 일어날기 쉽다.	대체로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따라서 애매한 정황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자제하라.						